

월간 글로벌 철강이슈 (19년 8월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chansong.song@ekosa.or.kr, 02-559-3545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중국 철강산업의 최근 환경정책 동향

- 중국 철강산업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위치하고 있으며, 과잉 생산능력 감축을 조기 달성한 중국은 환경규제에 집중할 계획
- '18년 완화된 감산강도와 철강수요 확대로 동절기 감산기간의 조강/선철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한 양상을 보였고 환경개선 목표도 달성하지 못함
- 철강산업은 전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'초저배출' 기준을 제시하여 철강생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
- 도심지역 철강사를 외곽/연해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전기로 생산설비를 장려하는 추세

◆ 변동을 거듭하고 있는 철광석 가격

- 상반기 브라질 광재덤 붕괴, 호주 사이클론과 발생 등 악재가 겹친 주요 철광석 생산 업체 생산량은 519백만톤으로 전년동기비 8.9% 감소했으며, 2분기 생산량은 1분기 대비 회복한 모습 보임
- 타이트한 공급으로 철광석 가격은 '19년 1분기 \$84/톤, 2분기 \$101/톤을 기록하며 전년비 대폭 증가했으나, 8월 들어 가격 하락이 시작되어 평균 가격이 \$91/톤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 향후 가격 안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

◆ 글로벌 주요 철강사 '19년 상반기 실적 발표

- 유럽 등 선진국 수요산업 위축에 따른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A.M.의 상반기 영업 이익은 전년대비 84.5% 감소, Tata Steel의 당기순이익은 58.5% 감소, Nucor의 순이익은 13.8% 감소했으나 3분기 건설업 수요확대에 따른 수익률 회복을 예상
- 일본제철의 FY'19년 1분기 영업이익은 33.1% 감소했고 상반기 영업이익을 철강생산 마진율 감소로 1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700억엔 수준으로 예상
- 바오산강철의 상반기 순이익은 38.2% 감소했으며, 하반기 철광석 가격하락의 긍정적인 요인에도 철강수요 위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로 여전히 우려하는 움직임